

구치노에라부지마 섬

구치노에라부지마 섬은 활화산 섬으로서 분화로 방출된 마그마에서 형성되었습니다.

오시는 법

구치노에라부지마 섬에는 공항이 없고 야쿠시마초가 운항하는 페리로만 갈 수 있으며, 야쿠시마 섬 미야노우라 항구에서 약 1 시간 40 분 걸립니다. 이 페리는 짝수날 오전과 홀수날 오후에 1 일 1 편 운행하며, 구치노에라부지마 섬에는 30 분에서 40 분만 머무릅니다. 따라서 야쿠시마 섬과 이 섬을 왕복하려면 적어도 이틀이 필요합니다. 자동차나 자전거는 추가요금을 내고 페리에 실어 운반할 수 있습니다. 섬 내에는 공공교통기관이 없습니다.

면적과 인구

구치노에라부지마 섬은 면적이 약 38km²로서 바깥 둘레는 약 50km 입니다. 2020 년 11 월 기준으로 64 세대, 103 명이 살고 있습니다. 사쓰마번에 의해 이루어졌던 이 섬의 유향 채굴이 20 세기 초엽 이후에 본격화되어 전성기에는 인구가 1,000 명을 넘었지만, 그 이후 노동 인구가 빠져나가고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감소해왔습니다.

생활 양식

섬 주민들은 스스로 물고기를 잡으며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섬에는 술 판매점과 소매점의 두 상점이 있습니다. 재고는 그날그날 달라집니다. 날씨가 나빠 페리 운행이 정지하면 7 일에서 10 일간 식료품 운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많은 가정이 식료품 비축용으로 여러 대의 냉장고나 대형 냉동고를 갖고 있습니다.

섬에는 병원과 상주하는 의사가 없습니다. 지역 사람들은 이 섬에 네 군데 있는 온천 가운데 몸에 좋다고 알려진 네마치 온천에 몸을 담급니다.

동식물

화산재에 의해 형성된,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이 섬에 풍요로운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. 섬 주변을 흐르는 차가운 해류와 따뜻한 해류가 서로 섞이면서 해양 생물에게 최적의 생태계가 이루어져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.

700 종에 가까운 어패류가 이 구역에서 확인되며, 또한 새로운 종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. 답새우(*Panulirus japonicus*)가 지역의 특산물입니다. 큰 에라부 큰박쥐(*P. d. dasymallus*)는 이 지역의 고유종으로서 세계에서 구치노에라부지마 섬이 이 종을 포함한 큰박쥐의 북한계선이며, 이에 따라 이 종은 1975 년에 일본 천연기념물로

지정되었습니다. 몸통이 짙은 갈색인 이 박쥐(수컷은 목 주위에 노란색 테가, 암컷은 흰색 테가 둘러져 있습니다)는 몸길이 약 25cm 로 소리보다 시야에 의존해 날아다닙니다. 2015 년의 신다케 산 분화는 이 박쥐의 먹이가 되는 나무의 수를 감소시켰고, 그 결과 이 박쥐는 2019 년에 일본 국내 희소야생동식물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마루바사쓰키(*Rhododendron eriocarpum*)(영산홍의 일종)는 보통 6 월부터 7 월에 걸쳐 산봉우리들을 뒤덮는데, 2015 년의 분화가 이 식물을 피멸시킨 이래 아직 꽃을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.

구치노에라부지마 섬은 2012 년에 야쿠시마 국립공원의 일부로 지정되었고, 2016 년에 야쿠시마 · 구치노에라부지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의 일부로 지정되었습니다.